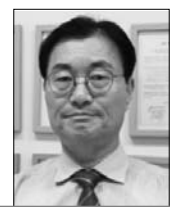


건강 칼럼

2021년 사망통계에 나타난 사실들

매년 12월 중, 하순쯤이면 질병관리청에서는 각 항목에 따른 최근의 통계...



이 윤 희 피스코 대표이사

특히 최근 들어 평균수명은 늘어났지만 '건강한 생활습관을 알고, 깨우치며, 평생에 걸쳐 실천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행질환이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등의 유병율이 매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2019년의 유병률은 27.2%, 11.8%, 22.3%에서 2020년 각각 23.8%, 13.6%, 23.9%의 증가세를 보였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저 원리, 원칙대로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게만 진행된다면 사람 사는 맛이 남까요?

사설

메타버스 서울 서비스 시작

최근 서울시가 행정과 같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타버스 서울' 1단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글 번역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영어 번역 기능도 제공한다. 서울시는 2단계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영어뿐 아니라 중국어나 일본어 등의 번역 기능도 확대한다.

새해 전북 정치권 전망

새해를 맞아 전북 정치권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이상직 의원의 낙마로 공식인 '전주' 열은 오는 4월 5일 재선거를 치른다.

올일하고 있다. 비록 임기는 1년이지만 민주당의 무조건 결정에 예상 밖으로 다가 간 경쟁 구도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기고문

계묘년 설 명절에는 고향집에 안전을 선물하자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이 다가오고 있다. 한동안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향방문을 망설였던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로 이번 설은 고향방문 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생했을 때의 피해가 상당할 수 밖에 없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의 절반 이상이 주택 화재에서 발생한다.



진 화 수 남원소방서 식장119 안전센터장

재를 감지해 주기 때문에 초기진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시설이다. 이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법 제10조에 따라 2017년 2월 5일부터 기존 주택을 포함한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부터 60cm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만약 설치가 어렵다면 남원소방서에 문의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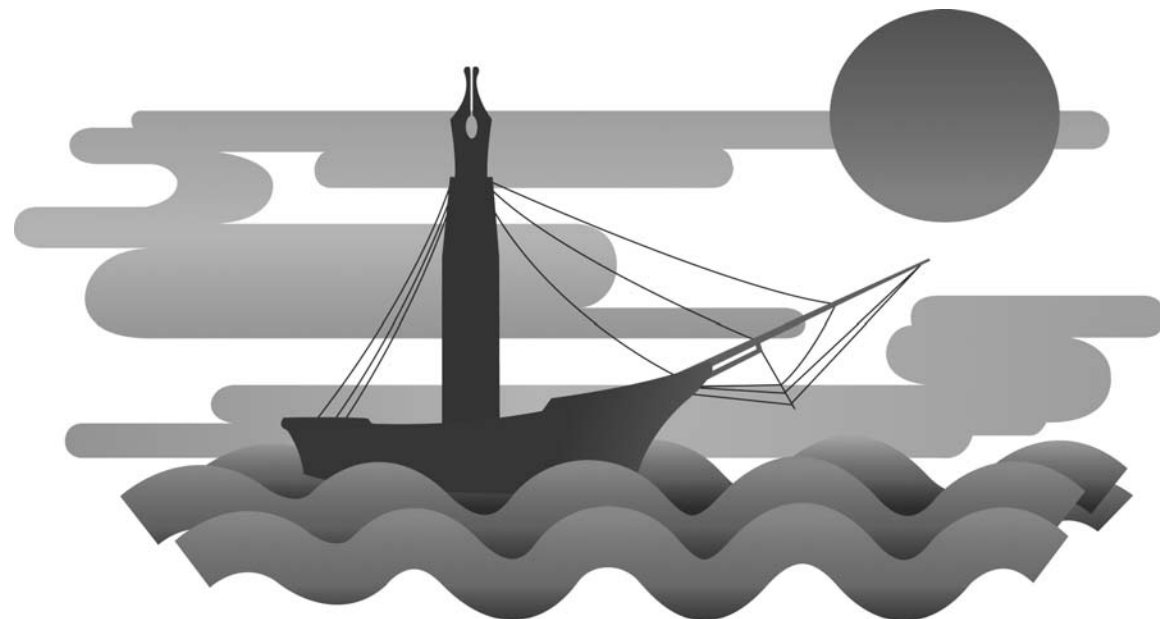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